

## “망가져야 산다”



### ‘김비서가 왜 그럴까’ 마친 황보라·황찬성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인기 요인으로 감초 역할을 맡은 조연들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다. 그 중에서도 황보라(35)·황찬성(28)은 맛깔스러운 캐릭터 소화력으로 드라마의 재미를 한층 높였다. 이들을 차례로 스포츠동아가 만났다.

## “연기에 맞들었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황보라(왼쪽 사진). “사람 냄새나는 좋은 놈이라는 말이 가장 듣기 좋다”는 황찬성. 무한 긍정의 에너지를 뽐내는 두 사람은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를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보이면서 배우로 확실한 자리를 구축했다. 사진제공 | UL·JYP엔터테인먼트

30대 중반... 청순가련형 캐릭터도 한계 결혼한다면? 당연히 오래 사귄 남친과

연기자 황보라가 연기자로 발을 들여놓은 지 어느덧 15년째이다. 2003년 SBS 10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그는 쉬지 않고 활동하면서 자신만의 캐릭터를 구축해가고 있다. 20대 초반만 해도 지금처럼 “망가지는” 황보라의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 나름 “여리고 눈물 많은 성격”이어서 스스로 기피했다. 하지만 어느순간 “맞지 않는 옷”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을까”하는 마음만 가득하다.

“30대 중반을 앞두고부터 연기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자고 마음먹었다. 청순가련형이나 억척스러운 아줌마 캐릭터는 한정적이라고 생각했다. 재밌으면서 코믹한 캐릭터는 대중에게 시원함과 통쾌함을 줄 수 있다는 장점에 망가지기 시작했다. 저에게는 둘 파구였다.”

황보라는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를 포함해 전작 KBS 2TV ‘우리가 만난 기억’, MBC ‘보그맘’과 ‘불어라 미용사’ 등에서 개성 강한 캐릭터를 맡았다. 특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연기한 봉세라는 원작인 동명 웹툰에 없는 인물이라서 창작의 고통이 따랐다.

그는 “표정은 과하게 하지만 말투는 일상적으로 하는 설정을 넣어 시트콤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했다. 과한 부분은 재촬영하며 밸런스를 유지했다. 앞서 제가 맡은 캐릭터들의 이미지가 비슷해 시청자가 느낄 지루함과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처음 코믹연기를 했을 때의 “오글거림”을 떨치고 스스로 생존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황보라는 씬 없이 에너지를 뽐냈다. 그의 긍정적 모습에 주위에서는 ‘무슨 약 먹고 사느냐’고 물을 정도였다.

“하루 2만보를 목표로 걷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한다. 일 없으면 없는 대로,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한다.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많더라. 이번 드라마로 주목 받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언제나 시기가 있는 것 같다.”

“이제 시작”이라는 황보라는 갑자기 주목 받는 건 감사하지만, 모든 건 ‘순간’이라고 했다. 그는 “평생 연기할 것이기에 약처럼 매달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저의 열정을 사용하고 싶다”고 다시 한번 초심을 다졌다.

“올림픽이 있어 활동을 쉬면 연기가 뒤쳐지는 기분이다. 반복된 학습을 통한 연마 작용으로 연기가 느는 것 같다. 하하! 연기할 때 가장 행복하다. 일을 끝낸 뒤의 뿌듯함을 안고 친구들과 맥주마시면서 수다 떨 때 너무 좋다. 놀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연기인생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 결혼도 신중하게 고려할 때. 배우 이정우의 동생인 차현우와 6년째 열애 중인 그는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오래 사귄 남친과 하지 않을까”라고 수줍게 미소를 짓는다.

“아직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은 없다. 결혼한다고 해서 연기활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하하. 직업적 성공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철벽남에 자린고비 설정은 내 아이디어 이젠 연기 싱거우면 조미료 칠 줄도 알아

남성그룹 2PM 멤버인 연기자 황찬성은 12년 전, 연기를 처음 시작한 2006년 MBC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 때로 시계를 돌리고 싶다고 했다. 지금이라면 더 “확실히 잘 할 자신”이 있어서다. 미래를 미리 엿볼 수 있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데 더욱 자신감이 생기는 게 당연하지만 그만큼 아쉬운 마음도 크다.

“그냥 아쉬움 덩어리다. 촬영을 마치고 내 연기를 되돌아보며 더하고 덜어내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지난 시간을 그리워하는 건 부질없는 생각이지만. 하하!”

그래도 황찬성은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그는 연기를 요리에 비유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하는 고민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웃었다. 처음 연기를 할 때만해도 “짓가라질은 어떻게 해야 하고, 밥은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랐”지만 지금은 “연기가 싱거우면 조미료를 쳐가며” 연기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과거엔 밥을 먹으라고 상을 차려줬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떨지 몰랐다. 이제는 나름대로 맛깔스럽게 차려서 먹으려고 노력중이다. 감초차 오지 않았는데 말이다. 캐릭터 표현법 등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연기에 대한 열정은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 참여하면서 더욱 커졌다. 그는 드라마에서 능력 있고, 동료직원들 사이에서도 1등이지만 오로지 승진을 목표로

로 여성들의 접근을 불허하는 ‘철벽남’을 연기했다. 원작인 동명 웹툰에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캐릭터가 철벽남이 된 배경에 자린고비 설정을 넣은 것은 그의 아이디어다. 그만큼 이번 드라마에서 그의 참여도가 높았다.

드라마의 높은 화제성에 힘입어 자신의 인기도 달라졌음을 “충분히” 체감하고 있다. 2PM으로 활동하며 아이돌 그룹 멤버로서 정상에 올랐지만, 연기자로서 느끼는 인기는 새롭다. 그는 “여러 반응을 가운데 ‘ㅋㅋㅋ’ 댓글이 가장 좋았다”고 했다. 과한 화려함보다 평범한 게 좋다는 그는 주변 사람들이 건네는 칭찬 중에서도 “사람 냄새나는 좋은 놈”이 가장 듣기 좋다고 했다.

“내세울 건 없다. 단지 하고 싶으면 실행에 옮겨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다. 팔프를 좋아하는데, 자외선 차단제와 팔도시를 한다. 햇빛이 뚫고 들어와 살이 탈까봐 걱정은 되지만, 하고 싶은 건 안 할 수 없으니까. 하하!”

SNS에 글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는 자신이 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목소리를 낸다. 황찬성은 “머릿속에서 자기검열을 하고 간결하게 정리한 다음에 심호흡 한번 하고 글을 쓴다. 많은 사람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길 바라는 건 욕심이다. 맞다 아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저의 의견을 쓰는 것”이라고 했다.

“제 생각과 다르게 전달될 때는 속상하기도 하지만, 이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겪는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잘 하고 싶은 욕심만큼 안 됐을 때의 스트레스가 크지만, 즐기면서 하려고 노력한다. 제가 선택한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싶다.”

백슬미 기자

### 연예뉴스 HOT 5

유상무·김연지 커플 10월28일 결혼

유재석, 日 우투로 기념관 건립 지원

강태구, 폭력 주장 전 여친에 손배소

김지석·이엘, 제천음악영화제 사회

KBS, 김제동 시사프로 진행자 논란

암 투병중인 개그맨 유상무(38)가 김연지 작사가(32)와 10월28일 결혼한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 호텔에서 가족 및 친지, 지인들을 초대해 비공개 예식을 올린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디지털 싱글 작업을 함께하며 인연을 맺었다. 지난해 11월 교제 중인 사실이 알려진 뒤 올해 4월 결혼을 약속한 사실을 밝혔다. 김 작사가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었던 유상무의 곁을 지켜왔다. 유상무는 SNS에 “가장 힘들 때 옆을 지켜준 사람”이라며 감사를 표한 바 있다. 유상무는 2004년 KBS 1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김연지 작사가는 유상무의 디지털 싱글 ‘녹아버린 사랑’ 등을 썼다.

개그맨 유재석이 일본 우투로 마을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해 5000만 원을 기부했다. 1일 아름다운재단에 따르면 유재석은 모금 캠페인 ‘기억할게 우투로’에 5000만 원을 쾌척했다. 유재석은 2005년부터 우투로 주민을 위해 여러 차례 기부를 해왔고 2015년 MBC ‘무한도전’을 통해 우투로 마을을 소개해 관심을 이끌어냈다. 우투로 마을은 1941년 일본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현재 이 곳에 사는 재일동포들은 주거지가 언제 강제 철거될지 모르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등 시민단체가 우투로 마을의 부지를 매입한 상태로, 유재석도 이에 동참해 성금을 기부했다.

가수 강태구가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옛 연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일 법률사무소 아트로에 따르면 강태구는 “3월 전 여자친구인 뮤지션 A씨가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SNS에 올려 피해를 봤다”면서 1억원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A씨는 앞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강태구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강태구는 이를 부인했지만 거센 비난에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그는 “악플러의 인신공격, 허위 사실에 기반한 보도 등이 이어졌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강태구는 제15회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반상 등을 받았다.

연기자 김지석과 이엘이 9일 충북 제천 청풍호반무대에서 열리는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식을 함께 진행한다. 이들은 영화제 조직위원장이기 이상천 제천시장의 개막 선언, 홍보대사 권유리 무대인사, 국제경제정부 심사위원장 소개, 올해 영화음악상 수상자 탄탄 시상식, 개막작 ‘아메리칸 포크’ 배우들의 무대인사 등으로 꾸며지는 개막식에서 관객을 만난다. 김지석은 영화 ‘국가대표’로 제32회 황금촬영상 신인남우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엘은 영화 ‘내부자들’, ‘바람바람바람’ 등에서 연기를 펼쳤다.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14일까지 38개국 116편의 영화와 40여개팀의 공연을 선보인다.

1일 KBS가 방송인 김제동을 심야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 기용하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내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KBS는 현재 1TV ‘뉴스라인’을 방송하는 매주 월~목 오후 11시에 김제동을 진행자로 내세운 심야 시사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김제동이 새로운 뉴스프로그램의 앵커로 나선다는 시선이 제기되면서 기자와 공영노조 등이 반발했다. 이에 대해 KBS는 “준비 중인 프로그램은 뉴스가 아니다. 따라서 김제동이 앵커로 출연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가을 개편에 대비해 PD들이 기획 중인 프로그램은 새로운 포맷의 시사 토크쇼”라고 밝혔다.